

모국어로서의 영어습득과 외국어로서의 영어습득

—이론적 배경과 응용을 중심으로—

계 명 일*

I

모국어로서의 영어습득과 외국어로서의 영어습득과의 관계는 학자들간에 깊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은 얻지 못하고 있다. 언어습관을 zero structure에서 full structure에로의 발전의 과정으로 파악한다면 양자간의 관계는 중대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다. 특히 Chomsky 이후 생성이론에 의한 문장의 생성과정이 활발히 연구되고 또한 언어심리학적 견지에서 언어의 발달과 인식의 발달의 상관관계가 구명되어 서서히나마 언어발달과정의 일반적 특성이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발달언어 심리학의 도움으로 모국어로서의 언어습득과정에 대한 연구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논문은 이러한 심리학적 성과를 기초로 양자간에 공통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로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이 두 관계가 실제 영어학습전략과 영어교육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흥미해 보고저 한다.

II

미국의 유아언어연구에 일대전기를 마련한 사람은 바로 Chomsky이다. 그는 Skinner(1957)의 행동주의적 언어습득이론에 호된 비판을 가하고 있다. (Chomsky, 1964: 26-58) 이것이 발화점이 되어 1960년경부터 그의 생성이론은 그때까지 소홀히 여긴 syntax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그 주된 이유는 일정한 생성규칙에 따라 기본구조에서 보다 복잡한 구조를 생성전개함으로서 구조의 유기적 관계가 명시되어 「규칙과 구조의 역동적(dynamic) 관계」에 의한 문장의 전개야말로 syntax의 발달의 기본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론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Chomsky의 생득적언어관을 거의 그대로 도입하여 발달언어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in-

* 人文大學 教授

guistics)이라고 하는 명칭 밑에서 생성문법적 언어습득이론을 주창한 사람이 McNeill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cNeill, 1966: 15-84))

1) 언어습득능력(language acquisition device)은 언어의 보편적 특성(linguistic universals)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LAD의 특성은 생득적(innate)이며 문법의 습득순서나 과정에 제약을 가한다.

2) 기본적 문법관계나 문법의 주어 술어와 같은 기본 개념은 생득적이다.

3) 유아는 의미에 가까운 기본연쇄(basic strings)로 말한다. 따라서 음과 의미의 관계는 어른의 그것보다 한층 더 엄밀(rigid)하다.

4) 부모의 역할은 언어발달의 방향제시(directions)를 하는 정도이다. 연습에 의하여 새로운 형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문법사항을 정착(stabilize)시키는데 불과하다.

5) 유아는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문법규칙을 습득해 나간다(이를테면 No fish→That no fish→That's not fish→That's not a fish). 따라서 성인이 제공하는 언어는 모델이 아니라 유아 자신이 창출해낸 문법에 대한 가설을 검증(hypothesis testing)하는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거니와 이러한 가설과 주장은 그후 얼마간의 수정이 가해지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간에게는 생리적으로 언어의 원형을 구비하고 있어서 그것이 어느 일정한 성장기에 도달하면 외부로부터의 언어자극에 촉발되어 발달해간다」라고 하는 전제적 가설이 있다. 결국 언어는 습득이나 획득(acquire)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심리적 능력과 더불어 발달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발달언어심리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즉 자극과 반응의 결합에 의해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행동주의적 학습이론과 대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달언어심리학의 테두리 속에서 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적어도 syntax의 발달에 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Menyuk, 1969) 이 연구과정에서 문법사항이나 문법조작의 발달순서가 상당히 밝혀졌지만 무엇이 생득적이냐하는 문제는 거의 규명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언어는 그자신 별개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식(cognition)의 발달과 병행해서 발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McNeill(1966)은 「언어습득은 보다 일반적인 인식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라고하는 가설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Lenneberg(1967)은 생물학적 견지에서 변형과 인식과의 관계를 「문장의 변형관계와 도형인식의 유사성」에 있어서 흥미깊은 검증을 하고 있다.

최근 유아의 언어습득연구의 초점은 「의미의 습득과 인식의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두고 있다. 유아는 언어의 의미를 단순히 형식(form)과 그 의미(referent)와의 상관관계에서 습득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환경(immediate environment)의 구조인식에서 출발하여 일반적, 구상적인 것으로부터 특수성과 추상성이 높은 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형식이 발달되어간다는 견해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피아제」의 습득이론이 재평가되고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유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가 진전된 것은 이미 지적인 바이지만 거기서 얻은 언어발달의 과정과 구조를 축으로 기타언어(사모아어 아라비아어 체코어 핀란드어 등)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아의 언어발달과 비교연구함으로써 언어습득의 일반원리를 끄집어내려는 시도가 slobin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이미 결과보고가 나와있다. (Slobin, 1971: 298-411)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언어와 인식의 양면에 관해서, 개별성으로부터 보편성으로 그리고 언어의 보편적특성과 인식의 보편적특성의 상관관계로 시점이 옮겨지고 있으며 language-free acquisition model 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이상 발달언어심리학의 이론을 논하였는 바, 언어습득의 원점으로 돌아가 그 기본원리를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외국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단서를 얻게 될지도 모르며 이를 위하여 발달언어심리학은 귀중한 사사를 해줄수 있을 것이다.

III

다음은 모국어로서의 영어습득구조에 관하여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a. 발음의 발달

생후 6개월되는 종알대는 시기(babbling period)에 들어서면 음절로 묶어서 발음하며 또 인토네이션은 분절음(segmental sounds)보다 먼저 습득된다. 생후 2개월되면 인간언어의 기본적인 음조인 올리고 내림이 습득되며 명령의 음조는 10개월, 의문의 음조는 2년째가 되면 터득한다고 한다. 9개월되는 유아는 의문문에 대하여 동작으로 정확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 (Lieberman, 1968 : 45) 한살난 유아가 'mama' 라고 말할때는 'mama, pick me up' 'mama, feed me' 'mama, hold me' 라는 요구문(request)에 해당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동작(예를들면 양손을 쳐들어서 포용하는 시늉을한다)을 수반할때도 있다.

필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아의 언어습득에 관해서 조사할때 어느 모친이 외마디말(one word sentence)을 사용하는 단계에 있는 애기가 밖으로 나가고 싶을때는 달혀 있는 문에 가서 'bye bye?' 라고 말한다는 보고를 들은일이 있는데, 이것은 의미적으로는 'May I go out?' 에 해당하는 훌륭한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구나 의문, 명령을 나타내는 음조는 외마디말의 탄생과 동시에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형성되어 있지 않나하는 느낌이 든다. 요구, 의문, 명령의 음조는 상당히 보편성(universality)이 높은것이며 Jakobson (1968)은 보편성이 높은 것일수록 빨리 발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어습득에 있어서 intonation 의 중요성을 역설한 사람은 C. Fries 이었다. 그는 분절음 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음조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Fries, 1945 : 23)

언어의 본래의 모습은 음(sound)이며 그것은 분절음(segmental sounds)과 초분절음(supra-segmental sounds)으로 나누어지는데 초분절음은 이른바 분절음의 틀(frame)이요 그릇이다. 먼저 틀이 생긴후에 그틀 속에 넣을 것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것이다.

모국어습득은 사춘기(puberty)까지는 끝나지만 그때가 되면 두뇌의 언어습득분야의 유연성(plasticity)이 상실되어 언어습득 능력이 저하된다. 그러나 어떤 연령에서든지 타언어수를 습득하는 능력(matrix for language skills)(Lenneberg, 1967)은 남아있다.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이 다같이 질적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습득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양자 공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유사한 습득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영어학습의 초기단계에서 착실하게 기본적인 영어특유의 리듬을 숙달시키는 것은 영어의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극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 「올바른 영어음을 충분히 들려주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습득의 첫단계는 그 언어 특유의 음의 흐름(stream of speech)이라는 것을 필자는 통감한 적이 있다. 이민간지 몇달밖에 안되어 영어가 서투른 세상 난 친구의 손녀가 수잔이라는 미국여아와 애기방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을때 옆방에서 둘의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었다. 벽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개개의 음은 들을 수 없었지만 친구의 손녀는 영어다운 음(tone)으로 말하고 있었다. 불과 한참밖에 안되는 낱말로는 의사소통이 안되었음인지 수잔은 'what?'를 연발하고 있었지만 여하간 수잔이 오면 한국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대단히 조잡(gross)하지만 확실히 영어다운 리듬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연령에 따라 방법은 다르겠지만 native speaker의 음을 충분히 들려줌으로써 학습자는 한국어와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한없는 호기심이 자극될것이다. 심리적으로 말하면 언어습득은 감각운동학습(sensory-motor learning)의 일종으로 언어를 먼저 감각기관에 느끼게 하고 그 음의 특징을 파악시키는 것이 운동으로서의 실제 발음에도 도움이 된다. 종래는 음성학(articulatory phonetics)으로 지나치게 요리된 외국어음을 발음시키므로써 입의 근육으로 기억시키려고 했기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저항이나 무리가 생겨 발음학습이 꽤감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자아내게 하였던 것이다.

5·6세의 어린이는 테이프에서 native speaker의 음을 듣기만하고 아무런 발음훈련도 받지 않았는데도 실로 자연스러운 영어의 음(분절, 초분절음 공히)을 습득해 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유아의 경우이지만, 사춘기를 지난 학습자도 자연스러운 외국어음을 덮어놓고 들려주어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 운동기관으로부터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그리고 효과적인 영어음에의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유아는 모국어 특유의 음, 혹은 리듬을 분절음보다 먼저 습득하므로 외국어인 영어학습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영어의 음의 흐름을 먼저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가설을 제기한바 있다. 이하 발음의 발달, 발음 의미 기본문법구조의 습득에 관하여 차례로 고찰해 본다.

b. 발음의 습득

유아의 발음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아직 기대한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나 일찍 부터 그 언어학적 체계화를 이룩한 사람은 R.Jakobson(1968, 1971)이다. 그의 기본적인 주장은 유아의 발음의 발달은 1) 어느 언어에도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어느 언어에만 있는 보다 특수성이 높은 것으로 발달하며 이것은 계층(hierarchy)을 이루고 2) 극화의 원리(polarity principle) 또는 최대대립의 원리(principle of maximal contrast)를 이루며 3) 거의 두항목 대립적(binary contrast)에로 발달한다. 유아의 이러한 발음의 발달의 원리에서 음운의 보편적 특성을 구하고 생성음운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시차적 특성이론(Distinctive feature theory)을 연구해낸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런데 상술한 세가지의 원리는 한 몸이 되어 발음의 발달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대립은 최소의 에베르기밖에 필요하지 않은 자음(optimal consonants)의 p.m.과 최대의 energy 방출을 요하는 a. (optimal vowel)의 대립에서 시작하여 'papa' 'mama'가 매우 일찍 나타난다. 인구어의 조어가 'māter', 'pāter'로 되어 있어서 이 원칙에 들어맞은 것은 흥미있는 현상이다. 자음은 다음에 兩唇音 /p/와 齒音 /t/로 나누어 /k/는 그것들을 뒷받치고 있는 중간과열음을 이룬다. a는 다음에 같은 입의 열림(openess)을 가진 /u/와 /i/(공히 +diffuse이지만 front vs. back의 대립이 있다)로 나누어진다. 이것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Menyuk(1971)에서는 유아의 발음에 관해 상당히 깊은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자음의 습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3살 /b/ /m/ /n/ /f/ /w/ /h/

4살 /p/ /d/ /s/ /k/ /h/ /l/

5살 /t/

비교적 계속음(continuants)의 발달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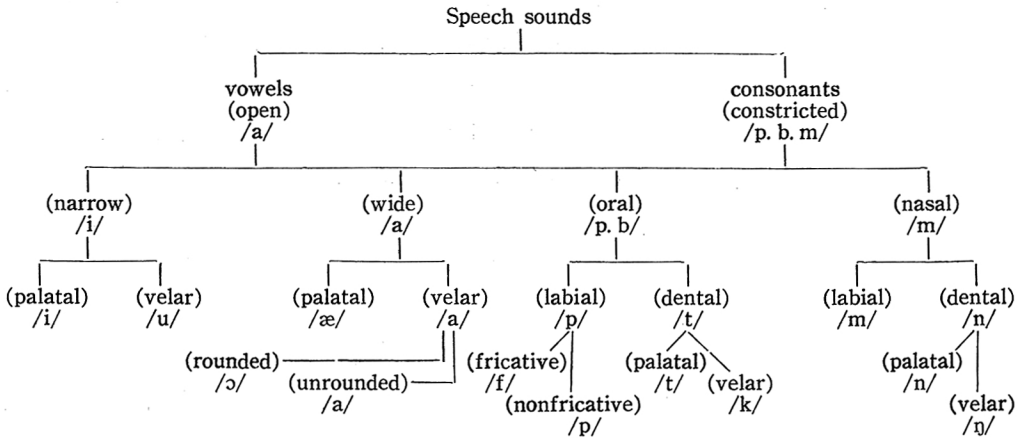
5살 -/v/ /s/ /z/ /š/ /z/

5 1/2살 /č/ /v/

6살 -/j/, -/θ/, /ð/,

어종의 /ŋ/은 3살까지는 터득되지만 어미의 /ŋ/은 6살까지 걸린다. 어미의 /r/는 4살까지

터득하지만 어두 어종의 /r/는 5살반경까지는 발음할 수 없다. 또 상기한 바를 보면 명백하겠지만 /r/ /s/ /ʃ/ /θ/의 습득은 일반적으로 느리다. 발음의 발달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Menyuk, 1971 : 74)



다음과 같은 prototypes 에서 subtypes 에로의 발달이 발견된다. (Smith, 1973)

- a) /s/ — [/s/ 두살난 유아는 mouth 와 mouse 의 구별은 인지 할 수 있으나 발음상의 구
[/θ/ 별은 할 수 없다.
- b) /l/ — [/l/ 또한 light 와 right 의 구별도 할 수 없다.
[/r/
- c) /t/ — [/θ/ 필자가 관찰한 3 세아는 tri:→ri:라는 발전과정을 취했다. 또 birthday 를
[/t/ birtday, cloth 를 klot 라고 발음된다.
- d) /θ/ — [/s/ yes→jɛθ sick→θik.
[/z/ 필자가 관찰한 3 세아는 [siŋ]을 [θiŋ]으로 발음하고 있다.
- e) /s/ — [/s/ shoe 는 [su:], ship 는 [sip], shirt 는 [sə:t]로 발음 된다.
[/ʃ/
- f) /d/ — [/ð/ this 는 dis 로 발음된다.
[/d/
- g) /ts/ — [/s/ sing 은 tsɪŋ soft 는 tsoft 로 발음된다.
[/t/
- h) /w/ — [/w/ 이를테면 rabbit 는 [wɔbit]로 발음된다.
[/r/

분절음의 발달경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유아는 예민한 청각각(acoustic perceptibility)으로 음을 포착한다. 이를테면 *mouth*를 [mouf]로 발음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미 fricativeness(stridency)라는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또 *take*를 [kheik]로 발음하여 일종의 자음조화(consonant harmony)를 이루지만 /t/와 /k/는 [+diffuse](발음기관의 주변부(non-centrality)로 발음된다)라는 동일 특성을 가진 같은 클래스의 음이다.

2) 보다 일반적인 prototype에서 subtype으로 서서히 발달하여 어른의 모델에 접근한다. (successive approximations to adult models) 어떤 계층을 이루어서 세분화(differentiations)하는가에 관해서는 금후 보다 깊은 연구의 여지가 있다.

3) 대립성이 높은 음은 짝을 이루고(예 : t-k) 비교적 빨리 습득되지만 대립성이 적은 입의 중앙부에 가까운 음(r, dʒ)는 습득이 늦어진다.

4) 근육의 긴장을 요하는 음(s, i)는 습득이 늦어진다.

Menyuk(1971 : 67)는 미일의 유아의 발음은 공통성이 있다고 하며 +voice, +grave(예 : p, k), +nasal(m, n), +diffuse(t, k, u, i 등), +strident(s, ts 등), +continuant가 공통의 dominant feature 이라고 한다. 야콥슨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아의 음의 발달은 상당히 보편성이 높은 것이어서 지각, 생리의 발달단계와 호응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되어진다.

과연 이러한 유아의 발음발달 경향이 영어교육에 어떠한 시사를 제시해주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모국어로서의 영어습득과 외국어로서의 그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일한 과정으로 발음이 습득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서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어학습자가 곤란을 느끼는 l/r, d/ð, s/θ 등의 구별은 모국어로서의 영어습득자에게도 발달이 느린 것은 양자간에 어떤 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어학습자는 이미 모국어의 발음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지각, 생리상 하나의 습성(track or habit)이 붙어 있으므로 그것과의 conflict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장애이기도 하다. 종래 영어와 한국어의 음운체계의 비교에서 상이점을 곤란점으로 보고 철저히 훈련하여 왔다. 그것은 그것으로 효과를 거두는 일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외국어습득은 이른바 지각 생리(운동), 인식에 있어서 새로운 언어체계를 새겨넣는(imprint) 셈이 된다. 이때 습득에 참여하는 습득능력은 모국어의 습득의 경우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그 습득과정은 영어학습의 경우에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유아의 발음의 발달은 발음의 발달의 일반원리를 제시해 준다면 발음의 난이도를 밝혀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학교의 교과서를 편찬할때 단어의 선택이나 교재의 배열에 있어서 문법항목의 배열에 주력한 나머지 발음의 난이도에 대하여는 얼마만큼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

상당히 발음하기 어려운 '음 /θ/(both), /r/(tiger, orange) 또는 ht-to(clusters) 음군 /-tl/(little)/ fi:/flouer) /fr-/(friend) 등이 처음부터 나온다. 영어학습자에게는 문법상과 발음상의 이중의 학습부담이 되며, 게다가 처음부터 완전주의로 나가,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영어에 싫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발음의 기본을 가르치기 위하여 발음의 난이도를 고려에 넣은 non-sens syllables의 인지나 발음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언어습득은 마치 진흙으로 빚은 공작이나 조각같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수학과 같이 처음부터 정밀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끝까지 점진주의(gradualism)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I think so 에서 θ가 잘 발음이 안되면 우선 첫단계로서 /t/를 용납하여 I tink so를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 I sink so 보다는 I tink so 쪽이 더 잘 통하는 것은 native speaker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서서히 t, th, ...th 로 이동하도록 지도하면 저항을 최소화할 것이다. /r/와 /w/의 혼동은 양자가 음향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r/를 발음할 때 입을 오므리고 /w/를 발음하는 모양을 취하면 발음하기가 쉽고 보다 용이하게 /r/의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영어의 write 의 spelling 이 r 가 아니라 wr 로 되어있는 것은 까닭있는 것으로 납득이간다. 아무리해도 /r/발음이 안되면 /w/를 허용하여 wite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음조나 리듬은 귀로 들어야만 몸에 익힐 수 있지만 분절음도 입의 내부구조를 도시하여 혀나 입술의 동작을 설명하기 보다 native speaker의 발음을 이룰테면 sing 과 thing 을 대비시켜 충분히 들려주어 우선 acoustic image 를 파악하도록 하면 그것이 발음기관을 터득하는데 커다란 플러스가 되어 저항감도 줄어들 것이다.

음과 음의 결합에 관해서도 가능한한 gradualism의 원칙에 따라, 무엇이 보다 용이한가를 연구하여 단계적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려운 음결합은 가끔 빠트리는 경우가 생기며 이룰테면 ground 는 gaund→glaund→graund의 순으로 습득되어 다음과 같은 생략이 발생한다. flower→læwə, sleep→l:p, greedy→gi:di, driving→waivin(d가 빠트려지고 /n/가 /b/로, 또 /ŋ/이 /n/으로 매치된다). scrape→kreip, street→sri:t. general rule에서 specific rule에로의 이동은 어느 단계에서도 발견되는 발달과정이지만, wolf의 복수형은 최초에 wolf+s로, 또 houses는 보다 일반적인 장소의 복수형에서의 유추에 의하여 [hausiz]로 발음된다. /z/가 /iz/보다 그리고 [/t/,/d/]는 보다 특수한 /id/보다 습득이 느리다. 삼인칭단수현재의 s는 상당히 특수한 것으로 습득도 자연히 늦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국어로서의 영어학습자에게 곤란점(trouble spot)이 되는 것은 한영 양국어의 차이점에서 뿐만 아니라 규칙의 일반성과 특수성의 정도, 생리 지각의 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경우와 외국어로 습득하는 경우의 오류분석(error analysis)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는 현상이다. 모국어와 외국어에 있어서 오류분석의 중요성은 많은 학자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 (Richards,1974 Corder 1973)

c. 의미의 습득

유아의 의미의 습득과정에 관해서는 최근 조직적인 연구가 활발하다. 원리적으로는 음성의 습득의 경우와 공통점이 많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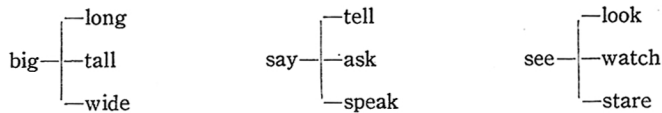
- 1) 감정적인 것에서 주지적인 것으로
- 2) 보다 시각적, 구상적인 것에서 비시각적 추상적인 것으로
- 3) 보다 일반적인 의미특성에서 특수한 것으로
- 4) 두항목 대립성의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언어의 기본적 조건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유아는 주위사람과의 대화로 언어나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대화에 대한 극히 강한 욕구가 일찍부터 발견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명령 요구 거절을 나타내는 몸짓이나 음조에 의한 의지표시는 응알때는 시기에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언어의 탄생과 동시에 이것들이 먼저 표출된다. Jespersen은 부정의 발달이 빠른 이유로서 부정은 강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Jespersen, 1922: 136) 명령이나 요구, 의문등을 포함하여 정동성(emotivity)이나 modality가 높은 것, 말하자면 대화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발생이 이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영어학습은 This is……, There is……, I have……와 같은 쉘에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종래 교재배열이 주로 구조나 기능상의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진데 원인이 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be나 have 동사는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 불규칙으로 변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정동성이나 대화성이 결여되어 별로 흥미가 없다. 좀더 학습자의 희망과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동사(이들때면 hope, want, like to, travel, fly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요즘의 교과서에는 대화형식을 많이 도입하여 Let's~등과같은 구문을 1학년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의미의 발달은 보다 일반적인 의미특성에서 특수한것으로 다시말하면 계층의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간다는 주장이 있다. (Menyuk, 1969 : 54)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의미의 분화가 이루어 진다.



어느 의미특성이 일반적인가 혹은 특수적인가에 관해서는 앞으로 보다깊은 연구과제이긴 하나 의미특성은 인식(cognition)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발달의 어느 단계에서는 이를테면 see와 look가 혼동되어 see!라고 쓰이는 수도 있다. 이것은 see에는 [-의지]라는

특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치로 이러한 혼란은 외국어로서의 영어습득에 있어서도 발견될 수 있는것으로 다음과같은 잘못이 그한에이다.

When I *saw* out of the window, I saw two cars racing.

필자는 see 가 무의지로 look 는 주체의 의지가 작용하여 한국에서는 전자가 보인다고 후자의 본다 와는 구별이 된다는것, look 와 watch 는 양쪽다 [+의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watch 는 [+계속] look 는 [-계속]이라는것 또 watch 와 stare 는 공히 [+계속]이지만 star 쪽이 놀라움이나 호기심같은 [+감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은 도표로 설명한 일이있다.

	see	look	watch	stare
의 지	-	+	+	+
계 속		-	+	+
감 정				+

see 는 때로는 watch 나 look at 로 대응되는 경우도 있다.

I saw television last night.

I saw a ball game yesterday.

see 는 가장 융통성있는 동사이다. 이와같이 의미특성의 대립을 제시하여 확실하게 인식시킴으로서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지어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것이다.

다음으로 의미의 대립이 큰 것에서부터 습득되는 예로서 in front of 와 behind 는 습득되어도 중간적인 beside 는 습득이 늦어진다고 한다. 어쨌든 의미의 대립성을 존중한 지도가 효과적인 것은 명백하다. 예를들면 bring 과 take 는 별개로가 아니라 방향의 대립성을 지적함으로써 혼동을 회피할 수 있다.

sweet, hard, cold, crooked 등과 같은 낱말은 물체와 인물 양쪽에 다 적용되는 double function 을 갖고 있지만 그 습득에 있어서는 6살까지는 물체에만 한정하고 9살에서 10살정도가 되었을 때 겨우 물체와 인물 양쪽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Menyuk, 1969 : 181) 구체적·지각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비지각적인 것에서의 의미발달을 보여주는 흥미있는 예이기도 하다. 낱말의 의미의 지도에 관해서는 의미(인식)특성의 종류에 따른 단계적 지도법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c. 기본문법구조의 습득

1960년 초기에는 테이프에 녹음된 유아의 발화는 주로 낱말의 분포를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떠한 어류(word classes)가 결합하여 발화를 형성하고 있는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유아는 성인의 발화를 듣고 그속에서 규칙성(regularities)를 끄집어냄으로써 문법을 습득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말하자면 문중에서 형식이 발생하는 위치의 유사성에서 유추, 일반화하여 유(classes)와 그 결합으로서의 형(pattern)을 습득해 나간다고 했다. 이러한 분석법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Braine(1963)의 축류(pivot class) +개발류(open class)에 의한 분석이다.

어느 발달단계에 있어서 다음과같은 발화가 수록되어 있다.

all broke	more car	Here brick.
		Here chairs.
all buttoned	more careal	Here flowers.
		Here truck.
all clean	more fish	Here more truck.
		Here more block.
all done	more high	There more block.
		There more car.

위 예에서 'all' 'more' 'Here' 'Here more' 등이 pivot class가 여러종류의 단어가 거기에 결합되어 문장 또는 발화를 이루고있는 셈이다.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S→P+O가 된다. 결국 pivot class의 멤버는 한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이른바 틀(frame) P__가 된다. 그 밑출친 곳에 여러가지 낱말을 대입하는 작업이며 일종의 대입문형연습이 있게 된다. Here car, more car, 에서 Here more car, There more car 에로 이른바 전개(expansion)문형연습으로 발전한다. 이때 *more here truck 과 같은 결합은 거의 없으며 어순은 처음부터 지켜지고 있다. 발달 언어심리학의 기수의 한사람인 McNeil은 Adam car, mommy soup, Urler suitcase..... 라고 하는 어군을 S→N+N과 같은 rule로 기술하고 이 rule을 생산적(productive)라고 말하고있다. (McNeil, 1966 : 15-84)

발달의 어느 시기에서는 위의 공식으로 표시한 어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구조관계는 상기한 rule로 분명해질 수 있을까?

유아의 발화문을 그것이 발하여지는 전체장면과의 관련성에서 관찰 분석을한 결과 초기의 한 두마디의 문장의 구조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를테면

- 1) Susan sweater on.
- 2) Mommy sweater on. 을 S→N+N+particle 이라고 하는 rule로 표시해도 1)이
- 3) Susan has her sweater on. 또는 2)가
- 4) Mommy, put my sweater on me.

라고 하는 구조관계(장면에서 명백해진)를 파악할 수가 없고 따라서 극히 피상적인 기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Bloom(1970 : 63—67)은 N+N의 결합은 대체로 다섯가지의 구조관계(conjunction, attribution, subject-object, genitive, locative)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류의 결합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P+O 모법분석들이 얼마나 표층의 현상밖에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다. 유아는 인식(cognitin)의 발달과 더불어 먼저 상황(situational contexts)의 구조를 파악하고 한정된 문법규칙과 어휘를 충분히 활용하여 상황에 의존하면서 의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표현 형태자체는 문법적은 아니라도 그의미(의도)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다. 유아의 문장은 성인의 문법에서 볼때 逸脫性(deviancy)가 되며 단순한 것이기는 하지만 장면의 특성(contextual features)과 불완전한 발화의 구조와의 규칙적인 공기관계(coocurrance relations)에 의하여 충분히 유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까닭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유아의 문장은 문법적인 문의 전단계로서 우선 장면에 적절한 문(situationally appropriate sentence)인 것이다.

언어발달의 초기에는 「누군가가 ~했다.」 「무엇인가가 일어났다」와같은 보고문(reportati'es)보다도 주체자측에서 객체에 작용하는 욕구, 부정, 의문, 명령과 같은 말하자면 작용을 하는 문(performative sentence)가 먼저 습득된다고 한다. 이것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의 원형을 이루는 대화형식이 먼저 발달한다는 것일 것이다.

어린이는 이른바 소꿉장난을 좋아하여 스스로 새로운 장면을 꾸미고 거기에 맞는 대화의 대본을 만들며 그것을 무한히 전개해 나간다. 말하자면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며 거기서 감정, 사고, 언어가 형성되어가는 것이다. 필자는 어린이의 대화를 녹음하여 지상에 기록한 적이 있다. 거기서는 자기들의 언어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새로 기억한 낱말이나 표현을 몇번이고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발적 학습(spontaneous practice)이며 이러한 창조적 대화의 전개야말로 언어습득의 요체인 것이다.

근래에는 언어활동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실용적 영어의 개정판으로서의 형식적인 회화연습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능하면 학습자 자신이 자기들의 동경이나 희망,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면(이들테면 여행 캠핑 파티 등)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대화극을 창조해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로 꾸며서 영어로 번역해도 무방할 것이다. 무엇인가 자신들의 상상을 불완전하지만 영어로 표현시켜본다. 이때 필요한 단어나 표현을 판서해줘도 좋다. 이와같이 자신들이 창안한 대화극에 애착심을 갖게된 것이며 잘못은 있을지라도 통하는 영어에서 올바른 영어로 모두가 수정을 가해 나간다. 이것이야말로 문법적 문예의 점진적접근(successve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 언어습득원리에 합치하는 것이 된 것이다.

유아의 의미론적 문장의 연구는 먼저 미국에서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킨바 있으나 Bloom(1973)에 의하면 유아는 'here and now' 즉 immediate environment에 있어서의 현재의 사건 이외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며 특히 의미론적 문장의 1단계에서는 2장면에의 의존도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에 인용하는 Bloom 의 말은 유아의 발화와 상황과의 밀접한 관계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Bloom, 1973 : 56)

“It has often been pointed out that children’s early utterances are very much tied to the context and behavior in the speech events in which they occur It should not be surprising that children are dependent on the support of the situation for comprehension in much the same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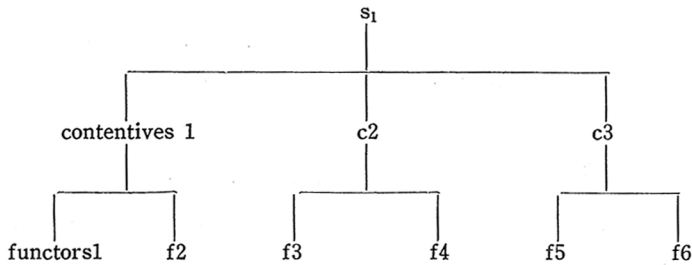
요약하면 한정된 언어환경 즉 잉여성(redundancy)이 높은 상황하에서는 그 상황을 거의 언제나 공유하고 있는 모친과 유아 사이에서는 극히 불완전한 발화일지라도 상황의 잉여성으로 보완되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상황(의미의 장)의 한정화 즉 장면만들기(contextualization)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래에는 단어나 문법과 같은 형식면에 중점을 두어 그것들을 지적훈련에 의해서 주입시키는 것이 어학교육이라고 생각했었다. 거기서는 먼저 표현하려는 의미내용이 있고 비로소 표현형식을 구한다는 언어활동의 기본원리가 결여되어 있어서 창조적 언어교육은 생기지 않는다. 언어의 창조성은 단지 언어의 메카니즘에서만 추구해야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 의미 내용 즉 인간의 본질에 구비되어 있는 표현의욕의 창조성에서만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표현하려는 내용이 파악되었을 때, 비로소 그 표현형식을 구하려고 하는 의욕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면만들기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생이라면 영어로 구사해도 무방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에 나오는 난해한 단어나 구문을 판서하면서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해도 좋고 또 한 유아의 경우라면 한국어로 흥미를 돋구는 이야기도 좋은 것이다. 토막 이야기나 진기한 뉴스를 L.A. Hill 의 Elementary stories for Reproduction(Oxford Press)나 영자신문에서 발췌하여 hearing 이나 dictation 등의 훈련에 이용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key words and phrases를 판서하면서 될 수 있는대로 평이한 영어로(때로는 한국어도 섞어가면서) 필요하면 제스처도 써가며 story telling 을 하고 장면만들기를 한다.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이해도를 체크하는 질문을 해준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dictation 이나 영문 이해의 연습을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학습에 학생들은 강한 흥미를 표시하고 있다.

유아의 문장은 전치사나 관사와 같은 기능어(functions)를 생략하는 이른바 전보문(telegraphic sentence)이며 성인의 문장을 모방하는 경우 심리적 생리적 제한에서 high information words 의 명사나 동사와 같은 내용어(contentives)를 선택하며 이른바 선택적 모방(selective imitation)을 행한다. 이때 올바른 어순은 처음부터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성인의 문장에 대한 체계적단축(systematic reduction)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모친은

유아가 “Eve lunch”라고하는 두가지 문의 reduced speech를 말하면 장면(circumstance)에서 유아의 의도를 간파하고 “Eve has had lunch” “Eve is having lunch” “Eve will have lunch”라고 전개(expansion)해 준다고 한다. 언어습득에 있어서 유아와 모친간에 문장의 축약(reduction)과 전개라는 두개의 조작이 교환된다고 한다(Brow & Bellugi, 1964 : 133—151).

문의 기본구조의 습득에 있어서 상당히 규칙적으로 high information words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난 후 서서히 기능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로 마치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지나 잎사귀가 나올 경우, 지엽은 이미 줄기속에 배태되어있는 것과 같이, 기능어는 내용어속에 내포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느단계에 가면 싹을 돋아나게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말하자면 발전적 세분화(progressive differentiation)의 현상이다. 이것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Slobin(1971)에 의하면 유아 언어의 기능어 발달에 있어서 굴절어미가 전치사보다 먼저 나타나고 또한 장소를 나타내 전치사로 in 이라던가 on 이 먼저 발달하고 다음으로 복잡한 under, behind, through, along 이 습득된다고 보고되고있다. 또 영어를 모국어화하는 유아는 Put the shirt on, Take your shoes off 와 같이 전치사로서 보다는 먼저 locative verb particle 로서 on, off, down 을 습득한다고 한다. 방향을 표시하는 to 와 from 있어서 일본의 유아의 경우 동사와의 관련속에서 이 구별이 5살정도까지는 상당한 혼란을 이끈다고 지적되어 있다. 방향성은 대의어인 「온다 간다」 「ageru, morau」등에 있어서 특히 잘못하기 쉽다. 네살난 일본 유아는 Yukichan ni ageta. (=moratta)

영어에 있어서도 동사에 따라 전치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점을 다음과 같이 리스트에 올려 용법을 문장속에서 확실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u>from</u>	<u>to</u>	<u>from 과 to 공용하는 동사</u>	
get	give	transfer	shift
acquire	yield	pass	carry
receive	grant	move	push
borrow	lend		

arrive at 나 in 이냐는 뒤의 location 을 나타내는 명사에 따라 규정되며 또 일월을 나타낼때 in 이냐 on 이냐 도 똑같이 때를 나타내는 명사에 따라 결정된다. (예 : on Sunday in July)

이러한 장소나 때를 표시하는 전치사의 지도는 인식의 난이도도 고려에 넣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치사는 동사나 명사의 종류나 이들 상호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며 기본구조의 발달은 복수 어문에 있어서 그 구성소는 이른바 내용어이며 이 어순은 정확히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굴절어미나 보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in 이냐 on 이 습득되고 서서히 문장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어가는 과정을 밟는다. 이것은 어느 언어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ELEC 의 고문 Haden 과 Texas 대의 Lehman 은 외국으로부터의 항공훈련자들을 위한 영어코스에 이른바 전개연습의 일종인 pyramid drill 로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아의 언어발달은 명사나 동사라고 하는 실질어가 핵이 되고 거기에 수식어나 기능어가 부가되는 과정 즉 문장의 원형(prototype)에서 서서히 문장구조의 그물을 좁혀간다는 이른바 발전적 세분화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pyramid drill 은 바로 이 원리와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방법상으로는 문장의 기능을 결정하는 동사에서 출발하여 V→N+V→AN+V→AN+V→Ad……와같이 전개하는 편이 좋은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도 금후의 다각적인 실험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IV

다음은 변형규칙의 발달 특히 부정, 의문, 명령등 단문내부의 변형발달과정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유아는 기본구조의 습득을 끝내고 나서 변형구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욕구나 부정과 같은 이른바 감정적 표현은 상당히 일찍부터 발달한다.

우선 부정에 관해서 개관해보기로 한다. 유아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에는 부정(no, not)를 문두에 부가한다.

No touch. No write this. No sit there. No fall! No play that. No more airplanes. No more noise. Not a teddy bear. 다음 단계로서 That no fish school. There no squirrels. He no bite you. I no want envelope.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 I am not a doctor. I don't want cover on it. paui didn't laugh. That was not me. 가 나타난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아질 것이다. (klima & Bellugi, 1966: 183-220)

첫째 단계

$$S \rightarrow \left\{ \begin{matrix} \text{No} \\ \text{No+} \end{matrix} \right\} + \left\{ \begin{matrix} \text{NP} \\ \text{VP} \end{matrix} \right\} \quad \text{NP} \rightarrow (\text{Q}) \text{N} \quad \text{Q} = \text{quantifier}$$

둘째 단계

S → Nominal + $\begin{Bmatrix} \text{No} \\ \text{No} \end{Bmatrix}$ + Predicate

셋째 단계

S → Nominal + Aux + Predicate

Aux → T — Vaux — Neg

T → $\begin{Bmatrix} \text{Present} \\ \text{Past} \end{Bmatrix}$ Vaux → $\begin{Bmatrix} \text{do} \\ \text{Mod} \\ \text{be} \end{Bmatrix}$

Neg → $\begin{Bmatrix} \text{No} \\ \text{Not} \end{Bmatrix}$

부정의 의미는 Bloom(1970)에 의하면 1) 비존재(Nonexistenee) 2) 거부(Rejection) 3) 일방부정(denial)의 순으로 발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의 의미의 발달은 인식의 발달과 상호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다음에는 의문문의 발달로 옮긴다.

먼저 의문의 음조가 발달한다.

- 1) See hole? 2) Have sone? 3) Ball go?

그 다음에는 어린이의 발화를 단계적으로 표시한다.

1단계

- 4) I ride train? 6) Where pencil?
5) What doing 7) Who that?

2단계

- 8) Why you smiling? 11) You can't fix it?
9) Why not smiling? 12) You want eat?
10) What the dollie have?

3단계

- 13) Does the kitty stand up? 16) Will you help me?
14) Did I didn't mean to? 17) What I did yesterday?
15) Did I saw that in my book? 18) Where my spoon goed?

4단계

- 19) What can he ride in? 21) Where does the wheel go?
20) What did you do? 22) Did you go there?

상기 예로서도 명백한 바와 같이 yes/no 의 의문문은 의문음조로부터 발달했으며 또한 wh 의 문문은 명사 또는 동사에 의문사가 부가되어 다음에 조동사가 나타나는데 전방이동(preposing)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17, 18) 그 다음으로 yes/no 의문문만이 조동사의 전방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시제의 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3, 14, 15) 그리고 마지막으로 wh 의문문에 있어서 조동사의 전방이동과 시제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의 발달은 단지 성인언어의 모방이 아니라 유아의 언어발달이 일정한 단계를 밟아서 조직적으로(systematic) 독자적인 발달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유아의 언어의 잘못을 at random 한 것이 아니다. 확실히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 성인의 문법에 접근해 가는 것이며 이른바 가설의 검증을 거쳐서 올바른 문법에 도달하는 셈이다.

부정과 의문변형의 습득과정에서 변형의 발달의 일반적 경향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먼저 기본구조에 부정 또는 의문의 표시(not, 의문음조 의문사등)이 부가되고 게다가 필요한 조동사나 시제 등이 부가되고 그리고나서 이들의 이동(permutation)이 행해지고 시제의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말하자면 가능한 한 기본구조를 그대로 두고 부정과 의문을 표시하는 요소가 부가되어 서서히 내부구조가 필요로 하는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순서를 취하는 셈이 된다.

Bellugi(1971 : 95—116)는 운용상 제한(performance limit)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보고를 하고있다. 발달의 어느단계에 있어서

23) What shall we shall have?

24) Why was I did break it?

25) What we will shall have?

와 같이 조동사가 중복되며 또한

Adult : Adam, say what I say; “where can he put them?”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Adam : where he can put them?

이라고 대답을 한다. 즉 이 단계에서는 조동사와 주어의 전도가 미발달 상태에 있으며 설혹 전도가 이루어졌다해도 원래의 위치에 있는 조동사가 소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거나 또는 23)의 경우처럼 잘못된 형이 되어버리고 만다. 다음으로

26) What will you do? 와 같이 긍정의문문을 할 수 있게되고나서 부정의문문으로 옮길 때에는 부정어삽입변형이 행해지지만 다음과 같은 주어——조동사전도변형은 적용되지 않은 채로 문장이 파생한다.

27) Why you can't sit down? 결국 이 때문에 Bellugi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
(Belluqi, 1971 : 115)

We find in general that the order of emergence of certain types of structures is remarkably similar across children who have heard different sets of sentences as input. We find, moreover, that the same types of “immature” forms or transient hypotheses occur across children during

periods of the language-learning process, the children's sentences are not directly modelled on the speech the children hear, at least in the data we collected. They occur rather consistently over a period of time, and are subject to change, as the child's system changes. Thus, the children seem to develop similar autonomous system, independent in certain ways from the language of the adult community.

유아는 먼저 의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나서 서서히 그 표현형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변형규칙을 습득하는 것이지만 이때 이른바 운용상 제한이 작용하여 한번에 하나씩의 규칙밖에 습득하지 못하며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성인으로부터의 교정과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해 나간다.

이와같이 유아언어에 있어서 부정과 의문에서 보는 발달순서나 경향이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에 어떤 시사와 응용성을 제공하는가는 금후 많은 가설과 실험으로 명백해지고 개발되어야 하나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생성문법이론에 있어서도 be 동사나 전치사나 관사는 변형규칙으로 도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저구조에서는 일반적, 기본적인 것이 규정되고 개별적(idiosyncratic)인 것은 변형으로 도입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언어습득은 대체로 이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이 판단된다.

외국어로서의 영어습득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완전무결한 문장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한대로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구나 감정을 불완전하게나마 이룰때면 I no like. That your pencil what this? Where pencils? Where he want?와 같은 문장으로도 자유로이 표현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초보단계에서 지나치게 오류에 대한 의식에 사로 잡혀서는 안된다. 오류를 범한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를 붙일 것이 아니라 오류의 정도를 제시하여 어느정도 「영어다움」이 몸에 배어있는가를 진단하여 그 잘못을 발전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모국어로서의 영어를 습득하는 유아와 외국어로서의 영어습득자가 범하는 오류는 Richards(1971)의 말대로 상당한 공통성이 있다.

... interpretation of error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long the lines of errors in first language suggests that second language errors are not, by nature, different from those made by children learning English as a mother tongue, hence they should not be of undue concern to language teachers.

양자의 습득에 참여하는 mental processes는 상당히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아의 부정이나 의문의 발달과정을 적극적으로 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자의 교육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단번에 완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서서히 gross한 원형(prototype)적인 것에서부터 보다 세분화되어 세부가 정돈된 상태를 향해 순

차적으로 이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상술한 습득의 과정은 이러한 발전의 하나의 방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Bellugi의 보고에도 있는 바와 같이 유아의 습득은 주위에 있는 언어를 자료로 삼아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지만 외국어학습자의 습득과정에 있어서도 언어심리학적으로 볼 때 하나의 가설로서의 체계에서 보다 native speaker model에 가까운 체계으로 이동하며 그러한 이동은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에게 공통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개개인의 오류를 카드 등에 기록하여 체계화하고 진보의 정도나 오류의 종류 및 경향을 진단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도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종속절 관계사절 등을 포함한 복문의 변형발달 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문장의 변형에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이나 의문과 같은 단일문(single base sentence)안에 있는 변형과 두개(또는 2이상)의 문(duble [multiple] base sentence)에 변형을 가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단축시키는 경우이다. 편의상 전자와 같은 변형을 단일문 변형 후자를 복문 변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대체로 전자가 발달하고 나서 후자로 이동하는 것이 유아에 있어서의 언어발달의 경향이다.

Hunt(1966)는 통어적성숙도(syntactic maturity)의 측정기준의 하나로서 복문변형을 적용한 종속문화(subordination)의 정도를 들고 있다. 거기서 그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통어적 성숙도란 무엇인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먼저 4년생의 작문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문장 :

1) There was a lady next door and the lady was a singer. 를 고학년 학생이라면 2) There was a lady next door who was a singer 라는 관계형용사절을 사용하는 하나의 주문(main clause)으로 요약한다. 등위접소구문과 관계사절이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다음의 재생테스트(reproduction test)로 명백해진다. (Slobin, 1973) 즉 2살 4개월된 유아는

3) Mozart who cried came to my party. 라는 문장을 듣고 다음과 같이 재생하고 있다.

4) Mozart cried and he came to my party. 이 유아는 3)과 같은 관계사절을 이해하는 능력은 있으나 그것을 생산(production)할때는 통어적으로 단순한 구조인 4)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Hunt는 더 나아가 4학년생의작문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는 가능한 관계대명사화이다.

5) The jewel was in the drawer. It was red (The jewel wh₁ch was red……)

6) I have new a bicycle. I like to ride it. (Which I like to ride.)

7) Today we went to see a film. The film was about a white-headed whale; (which was about a white-headed whale)

8) One colt was trembling. It was lying down on the hay. (One cold which was lying down……)

미국의 유치원에서 소중학교 학년별로 관계사에 의한 종속절화의 사용도를 조사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관계절의 사용빈도가 증가되어 통어발달의 측정이 도움이 되는것이 인정된다고 한다.

Hunt 는 관계사절에 다시 형용사화변형어나 생략변형에 의해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통어적성속도의 진보를 표시하는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들면 5)의 문은 형용사화변형에 의해서 9) The *red* jewel was in the drawer.로 간결하게 줄일 수 있으며 8년생은 4년생보다 1.5배나 더 많이 이 구문을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이른바 관계대명사소거 (relative pronoun deletion) 변형을 가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진다.

10) The jewel(which was) in the drawer was red.

11) Today we saw a film(which was) about Moby Dich.

상기구문은 8년생은 4년생보다 3배 또 12년생은 2.4배나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관계사절의 변형으로서의 동격화, 분사(현재과거)에 의한, 수식구조화로 고학년의 통어적능력측정에 사용되고 있다.

a) 동격화

12) There was a lady *who was a singer nex door*.

→There was a lady next door, *a singer*.

13) His owner *who was a milkman* was very strict to the mother and babies.

→His owner, *a milkman*,……

b) 분사에 의한 형용사화

14) Beautiful Joe was a dog *which was born ona farm*.

→Beautiful Joe was a dog *born on a farm*.

15) One colt *which was trembling* was lying down on the clay.

→One *trembling* colt was……

16) One colt *which was lying down on the hay* was trembling.

→One colt *lying down one the hay* was trembling.

동격화는 8년생쪽이 4년생보다 0.3배 많고 분사수식화의 사용도는 4년생보다 8년생이 1.6배, 12년생은 1.9배 높다.

이러한 관계사절에 의한 종속화의 과정 (the process of clause-consolidation 은 소·중학의 어학프로그램 (language arts program)이 연구해야할 사항의 하나라고 Hunt 는 말하고 있다.

문장의 embedding 과 deletion 변형의 조작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변형조작의 난이도를 고려에 넣어 교재배열의 문제로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두개의 문장가운데서 하나의 문장이 나머지문장에 embedding 될때 다음 두 가지 타일이 있다.

17) I know boy *who is sick*

18) The boy *who was sick* is back at school.

Menyuk(1969 : 106—107)에 의하면 17)의 경우는

19) I know the boy who(*and he*) is sick

와같이 단순히 who is sick 를 the boy 에 부가(*and*)했을뿐으로 일종의 접속(*conjoning*)에 불과하며 조작도 간단하여 상당히 빨리 발달하지만 18)은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위(*permutation*) 변형이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인식조작(*cognitive strategy*)이 필요하므로 발달이 느리다고 보고되어있다.

20) The bag is back at school[*and he was sick.*] →who

18) 보다 17) 쪽이 끈란도가 낮다는 것은 다음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2살 4개월난 유아가

21) The man I saw yesterday runs fast. 를 듣고 다음과 같이 재생한다.

22) I saw the man who runs fast.

23) I saw the man and he runs fast.

이 유아는 21)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재생할때 인식이 용이한 22)와 23)의 형으로 변형하는 셈이다. 이것은 관계사절뿐만 아니라 부정사보문이나 분사보문의 경우도 동일하며 왼쪽란이 오른쪽란보다 용이하며 습득도 빠르고 사용빈도가 높다고 보고 되어 있다.

24) I like the boy *singing over there* 25) The boy *sleepy near the rock* is my brother

26) I need to do *that*.

27) *To do that* is wrong.

28) I like *that singing*.

29) *The singing* is bebutiful.

다음에 부정사보문에 관해서 고찰해보기로한다. Chomsky(1969)는부정사보문구조에 관해서 흥미있는 관찰을 하고있다.

30) John is eager to see.

31) John is easy to see

30)의 see 의 의미상 주어는 John 이지만 31)의 see 의 주어는 John 이 아니다. 유아는 먼저 30)과 같은 표면구조에서 탐지할 수 있는 구조관계를 습득하고 31)과 같은 복잡한 심층구조를 가진 문장은 습득이 느리며 30)과같은 구조관계를 31)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30)과 31)은 동일한 구조로 간주하는 셈이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32) John told Bill to go.

33) John ordered Bill to go

유아는 먼저 표면구조로부터 구조관계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사앞의 명사는 자동적으로 주어라고 판단한다. 먼저 유아는 명사+동사(+명사)=S+V+(O)라고 하는 인지조각(perceptual strategy)를 터득하여 34) Mary is kissed by John.도 Mary가 주어 John이 목적어라는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32) 33)과 같은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인지조각을 설정한다.

(A) [Ni Vi NP₂ to Vj] S라는 구조의 문장에 있어의 Vj의 주어는 NP₂이다.

많은 동사는 이 인지술의 적용이 가능하다. persuade, permit, allow, urge, advice, compel, understand 등.

35) John wanted to go.

36) John expected to go.

37) John chose to bell the cat. 등에 있어서도 go의 주어는 John이다. 즉 32) 33) 35) 36) 37)에 공통되는 원리는 부정사보문의 동사의 주어는 직전의 명사가 되는것으로 이것을 Rosenbaum(1967)은 최단거리의 원리(minimal distance principle)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기로 하자.

38) John promised Bill to go. 이 문장에서는 분명히 go의 의미상의 주어는 Bill이 아니라 John이며 MDP는 적용될 수 없다. 부정사 보문에 있어서는 32) 33) 38)도 NP₁ V NP₂ to V라는 구조가 성립되어 보문동사와 주어와의 관계는 중화(neutralized)되어버리는 셈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that 보문(명사절)에서는 구조관계가 확실하다. 즉 34)는 NP₁V that NP₁V(John ordered that Bill go)로 되며 38)은 NP₁V NP₂ that NP₁ V(John promised Bill that John would go.)가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 두 문장도 주어——동사관계가 표면구조에서는 판단할 수 없으며 혼란을 일으키기가 쉽다.

39) I asked him what to do

40) I told him what to do.

what 이하를 절로고치면 그 관계는 명백해진다.

41) I asked him what I should do.

42) I tod him what be should do.

이상에서 알 수 있드시 통어관계는 명확한 명사절보문쪽이 의미구조에 가깝고, 구조관계가 중화되기 쉬운 부정사구문은 보다 표층의 구문으로 구조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학습자에게 보다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일반적인 순서로서는 명사보문을 제시하고 구조관계를 분명히 해두고 나서 부정사 보문에 옮기는 편이 좋을 것이다. 또한 동사의 타앞에 따라 보통 부정사보문을 취하는 것(want, beg, ask, compel, force 등), that 보문을 취하는 것(admit, declare, regret predict, 등), 부정사보문, that 양쪽을 취하는 것(find, believe, know, understand 등)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Fordor, Bever, Garrett(1974)는 어떤 형의 보문을 취하는가 또 보문을 취하는 동사

와 그럭저럭 동사에 따라 문장이해(sentence perception)의 난이도가 다르다고 한다. 예를들면 'slap' 'hit'와 같은 단일명사의 목적밖에는 취하지 못하는 동사는 see, know, decide와 같은 동사보다도 어렵고 또 like와 같이 양자를 포괄하는 동사는 더욱 더 문장인지에 곤란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동사의 타일과 문장이해도의 관계는 verb complexity hypothesis라고 부르며 실험심리학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바 언어습득에도 커다란 시사를 주게 될 것이다. 예를들면 종래의 문형은 거의 5형식에 준하는 그물이 큰 것이었지만 동사의 형(어떠한<변형>구조를 취하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에 따라 보다 세밀한 모형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문구조의 습득에 관해서 그리고 더욱 더 그 난이도에 관해서 검증이 행하여져야 한 것이지만 부정사보문(예 : I want to go.)은 상당히 일찍부터 발달한다. 여기에 관해서 Jakobson (1973)은 3살난 유아가

43) I want me to go 라고 하는 문장을 발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유아는 먼저

☆44) I want me to go

45) I want you to go.

46) I want him/her to go. 라고하는 일반형(general pattern)을 습득하고 a) 동일명사소거라고 하는 특수한 조작이 나중에 가서 습득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 깊은 일이다. 즉 d)라고 하는 중간구조(intermediate structure)를 일반적인 형으로서 언어발달의 어느단계에서 발한다고 하는 것은 중간구조가 단순히 문생성과정에 있어서 편의적인 허구(fiction)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완전히 습득하는 도중의 단계로 다음과 같은 중간구조로서 사용된다. (Menyuk, 1974)

47) It's for to eat.

48) you say it what's happening.

49) I dream about I got new toys.

47)은 보문표식소거변형 48)은 what's happening과 it와의 置換(permutation) 변형. 49)는 'I get'의 명사화가 각각 적용되어 있지 않다. Bever(1974 : 483-484)는 이러한 현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Misproductions are cases where either the child has not learned the late rules required to complete a derivation or he knows the rules required to complete a derivation or he knows the rules but somehow fails to employ them. In either case, the assumption is that the process of grammatical derivation is psychologically real.

일반적으로 중간구조를 영어교육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가 커다란 문제이지만 영어학습상 오류는 체계적이며 모국어로서의 영어습득자와 외국어로서의 학습자의 오류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지만 그 오류의 많은 것이 규칙의 비적용 때문이며 이것들은 일종의 중간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보문을 중심으로 문장변형의 습득에 관하여 논했지만 어떤 변형규칙이 습득상 곤란한

가 또는 용이한가는 응용언어심리학에 있어서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enyuk (1969 : 107)는 4가지 기본변형을 인정하고 부가 삭제 대입 置換의 순서로서 또는 사용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To generate the sentence types (declarative, negative, imperative and question) at an early age, the child uses operation which do not, initially, disturb the underlying sentence. At a late stage of development, when the child is now dealing with embeddings of the whole sentence, the same trend is observed. Again, his initial move is to add sentences to other sentences before disturbing the noun phrase-verb phrase relationship of underlying strings. He, therefore, adds before he deletes and deletes before he permute in the generation of these sentences.

즉 단문내 변형과 복문 변형과 양쪽에 공통적인 변형규칙의 발달경향이 관찰된다는 시사적인 지적이다.

V

모국어습득에서 외국어습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았다. 어떤 결론이라기보다 문제를 제기한데 지나지 않는다. 모국어습득과 외국어 습득의 관계에 관해 연구는 지금 착수한 단계이지만 금후에 실질적인 연구성과가 기대된다.

최근 언어능력에 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으며 단순히 언어규칙의 조작능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장면에서 어떠한 언어규칙을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전달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야말로 언어능력의 참모습인 것이다. 사회언어심리학(socio-psyolinguistics)의 입장에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 참고 문헌 ◇

- Bellui, U. Simplification in the children's language. In R. Huxley & E. Ingram (Eds.), *Language Acquisition: Models and Methods*, Academic press, 1971
- Bloom, L. *Language Development: Form and Function*. in emerging grammars,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 Braine, M.D.S. The Ontogeny of English phrase structure: The first phrase, *Language*, 1963, 39, 1-13.
- Brown, R & Bellugi, U. Three processes in the child's acquisition of Syntax. In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34, No. 2.
- Chomsky, C.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children from 5 to 10*. Mass., M.I.T. press, 1969
- Chomsky, N. A review of B.F. Skinner's *Verbal Behavior*. In J. Kats and Fodor. *The Structure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N.J., 1964
- Chomsky, N. *Language and Mind*. New York, 1968

- Fodor, J.A., Bever, T.G., & Garrett, M.F. *The psychology of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4
- Fries, C.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5
- Hunt, K.W. Recent measures of syntactic development. In M. Lester (Ed.): *Readings in Applied Transformational Grammar*.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72
- Jakobson, R. The sound laws of child language and their place in general phonology. In Adon and Leapold (Eds.): *Child Language: A Book of Reading*, prentice-Hall, Inc. 1971
- Klima, E. & Bellugi, U. Syntactic regularities in the speech of children. In J. Lyon & R. Wales (Eds.). *Psycholinguistics Papers*,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66.
- Lenneberg, E.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 John Wiley & Sons, Inc. 1967
- Liberman, P. *Intonation, Perception, and Language*. M.I.T press, 196u
- McNeill, D.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 Smith & G.A.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A psychological approach*. Cambridge, Mass.: M.I.T. Press. 1966
- McNeill, 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The Study of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70
- Menyuk, P. *Sentences Children Use*, Mass.: M.I.T. Press, 1969.
- Menyuk, P. *Th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Language*. Prentice-Hall, 1971
- Richard, J.C. Error Analysis and Second Language Strategies. *Language Sciences*, 17, October, 1971.
- Skinner, B.F. *Verbal Behavior*.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7
- Slobin, D.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Dingwall (Ed): *A Survey of Linguistic Science*, University of Maryland, 1971
- Slobin, D. & Welsh, CA. Elicited imitation as a research tool in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C.A. Ferguson & D.I. Slobin (Eds.): *Studies in child language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3
- Smith N. *The Acquisition of Phonology, A Case Stu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